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남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성도들의 말씀 무장을 돕기 위해 매년 주보에 게재되는 성경 구절을 범위로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화평은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건강해지니 행복해요”

주님을 영접한 후 위궤양과 천식, 탈구된 어깨뼈가 치료되고 간질 증상이 거의 사라진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힐다 완자 성도.

나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뇌정동맥류로 인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에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술 없이도 깨끗이 치료받은 정애나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977호 2022년 9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 ‘제21회 말씀퀴즈대회’

지난 9월 4일 주일 오후 6시,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 제21회 말씀퀴즈대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신학교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사진 3).

매주 주보에 게재되는 ‘오늘의 말씀’ 365구절(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을 퀴즈대회 범위로 정해, 7월 17일 주일 저녁예배 후 본교회와 국내 지교회 성도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선을 거쳐 총 41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 결과 19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9월 18일 주일 저녁예배 후 시상식이 있었는데, 영예의 대상은 허남숙 전도사(대전 만민교회, 사진 1), 금상은 박흥영 목사(대전 만민교회), 은상은 장계화 집사(중국 2교구), 동상은 정진영 목사(2대대 13교구장)와 안계현 집사(대전 만민교회), 장려상은 고경석 집사(1-3남선교회), 김일두 집사(4가나안선교회), 허혜정 집사(1-1여선교회)가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상했다.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에게 준 격려상은 광주 만민교회 김춘례 집사와 서원빈 형제가, 단체상은 2대대교구가 차지했다(사진 2).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평소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 무장과 함께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성구 한 절 암송할 것을 당부해 왔다.



[인터뷰]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남숙 전도사 (대전 만민교회)



대전 만민교회는 말씀퀴즈대회가 지교회까지 확대된 2003년부터 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대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두 번 또는 세 번씩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단체상은 해마다 받아서 그 상금으로 전 성도 떡 잔치를 하는 것도 대전 만민교회가 누리는 기쁨 중 하나이지요.

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다 보니 그동안 금상부터 격려상까지 크고 작은 상들을 여러 차례 받았고, 올해는 대상을 받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대전 만민교회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한 달에 한번 암송할 말씀들을 모아 테스트해 왔는데 올 11월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이 과정이 제게는 본선 진출에 큰 힘이 되었고, 무엇보다 대전의 본선 진출자들과 스타디움하면서부터는 해마다 상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어떤 사심도 없이 각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전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전 만민교회가 큰 상을 받게 될 때 어김없이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올해도 대회 일주일 전인 8월 28일 주일 아침에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대전에 좋은 소식을 안겨 주시리라 기대하였지요. 그런데 제게 이 큰 상을 허락하시고, 금상과 동상도 대전 만민교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와 찬조 등 한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쁨이 대전 만민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 하심이라고 생각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현상!

9.30

은사집회

인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일시: 2022년 9월 30일(금) 오후 11시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9월 19일(월)~10월 2일(주일)
 오후 9시~11시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 인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

화평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자라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요. 사회에서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만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평이 깨지고 마음 상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업터 등 자신이 속한 분야마다 아름답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평의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화평'의 영적인 의미

사전을 보면 '화평'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함, 서로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간에 불목하거나 사소한 감정 대립, 다툼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의 영적인 의미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잘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선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겉으로는 화평한 것 같아도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교만, 자존심, 불편한 감정 등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해 버려야 하지요. 죄악과의 싸움을 끝내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부부간에, 자녀, 친구, 동료, 이웃 등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셨습니다. 선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화평하셨던 것이 아니라 배움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실 때도 사랑으로 섬기시니 화평을 이루셨지요.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2.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지혜'인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평이야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에는 학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겸손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여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상대를 무시하고 화평을 깨뜨리면 결과적으로 큰일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인물은 왕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 했지요. 그는 소신이 뚜렷하고 열정이 있었기에 왕도 처음에는 그를 힘껏 밀어주었고, 백성들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

람들의 반발에 부딪혔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그를 지지하던 왕조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개혁 정책을 실행해 보지도 못한 채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반대파를 포용했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또 지식과 확실한 방법론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도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아랫사람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 심지어는 상사들과도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외톨이가 되고, 자칫 능력까지도 무시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화평을 깨며 일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사람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지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 거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아무리 사람 편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기에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종종 화평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능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도 있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지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일을 맡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 잡음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able>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주님을 의지하니 시술 없이 뇌정동맥류를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정예나 자매 (34세, 3청년선교회)



2021년 5월 2일 새벽, 잠자던 중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놀란 저는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CT 검사만 가능했고, 결과는 정상이어서 귀가해 다시 자려는데 극심한 통증이 또다시 밀려왔지요.

저는 뭔지 모를 심각성을 느껴 이번에는 백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 뇌 MRA 촬영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으니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에도 두통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 저는 5월 18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정동맥류’였고, 시술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진/ 치료 전, 진단서).

뇌정동맥류는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이 만나면 안 되

는데 그사이에 다리가 생겨서 역류하기도 하고 동맥의 큰 압력으로 인해 좁은 정맥이 견디지 못해 이명과 통증이 따르는 질환입니다. 제 경우에는 다리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여러 개의 다리가 생겨서 시술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어려우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병원을 알아보던 중 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 전문의를 소개받아 그곳에서 진료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의 뇌 영상 자료를 보시고 “뇌혈관이 터지는 위험한 부위는 아니지만, 얼굴 신경들이 모여 있어서 혈관 시술 시 적은 확률이지만 안면마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방사선 치료인 감마나이프 시술 시에는 부작용은 없지만 2년에 걸쳐 여러 횟수로 치료 받아야 점차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어떤 시술을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치료를 시작하기가 무섭고, 걱정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지요.

저는 가족에게 걱정할까 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교회 모바일앱 환자 기도 영상)를 받으며 이겨냈지요.

그러던 중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곧바로 이명이 사라지고 두통도 점차 사라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복잡한 뇌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꾸준히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대로 회개하며 변화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던 2022년 1월, 제가 만민

중앙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교회와 당회장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시는 교회이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 사실이이며, 당회장님은 15년간 섬긴 내 목자이시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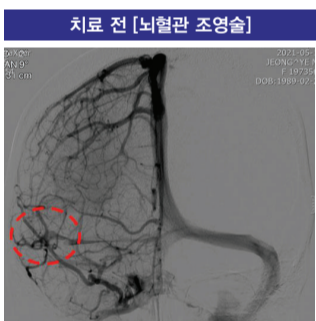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가족들에게 제가 아픈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저를 위해 세 차례 3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 때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조금씩 있었고 두통이 심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치료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통은 차츰 경미해졌고, 그마저도 사라진 것을 알고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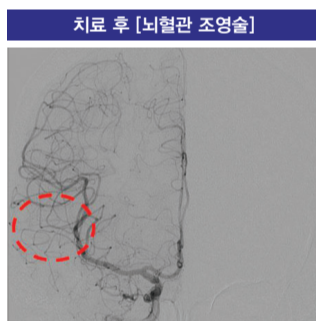
지난 7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시술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뇌혈관이 터질지 모른다. 시술 날짜를 잡기가 힘든데 오늘 검사를 위해 입원했을 때 검사와 시술을 같이 하자. 자연 치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시술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었기에 “검사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후 뜻밖의 결과가 나오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하다. 작년에 보였던 게 하나도 없다. 정상이다.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 없고 2년 뒤에 다시 검사만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매우 놀라워하셨지요(사진/ 치료 후, 소견서).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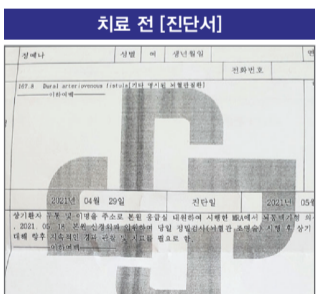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족들도 매우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뇌정동맥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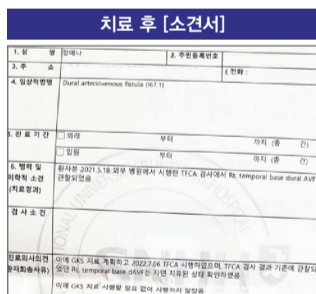
▲ 동정맥 기형 보임.



▲ 동정맥 기형 보이지 않음.



▲ 상기 환자 두통 및 이명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MRA에서 뇌동맥 기형 의심 소견 관찰됨. 2021. 05. 18.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당일 정밀검사(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상기 진단됨. 이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함.



▲ 환자분 2021. 5. 18.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TFCA 검사에서 Rt. temporal base dural AVF 관찰되었음. 이에 GKS 치료 계획하고 2022. 7. 06. TFCA 시행하였으며, TFCA 검사 결과 기준에 관찰되었던 Rt. temporal base dAVF는 자연 치유된 상태 확인하였음. 이에 GKS 치료 시행할 필요 없어 시행하지 않았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옥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당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생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